

ISU

2017 SPRING VOL. 88

INSIDE

이슈를 잡아라

이수C&E 'CGV 골든 에그 어워즈' 수상

Show me the 팀웍

이수시스템 솔루션개발팀

OUTSIDE

몸도 마음도 힐링

강릉 벚꽃과 제주 유채

아이러브 Culture

문화가 두드린 봄



*Handwritten signature*

# Contents

# 01

## Coverstory



### 표지 모델

왼쪽부터 송기원 사원(이수엑사캠), 여진주 사원(이수엑사보드), 김다나 과장(이수건설), 천유라 사원(이수엑사보드)

### 표지 작가\_ 변영재

반려동물과 인연을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수인들. 이젠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이란다. 기꺼이 자신들을 반려동물의 엄마, 언니라고 부르며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닌 '가족'이라고 말한다.

# 04

## INSIDE

### 05 Focus & News

### 10 이슈를 잡아라

이수C&E 'CGV 골든 에그 어워즈' 수상

### 12 꽃보다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수인들의 이야기

### 20 Show me the 팀웍

이수시스템 솔루션개발팀

### 24 Young 이수

내 인생을 바꾼 1%의 경험

### 28 Photo essay

사진으로 말하는 그들만의 이야기

이슬 \_ 이수엑사캠 관리팀 사원

한송이 \_ 이수건설 성남여수택지현장 강대관 대리 배우자

### 30 이수 상식

애플의 성공전략부터 이수엑사보드의 첨단기술까지

### 32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_

〈인생의 의미〉

# 35

## OUTSIDE

### 36 스페셜 리포트

카페의 진화

### 42 이수미식회

이수페타시스 김다해 사보기자 추천 식당\_

'롱브레드 서래마을점'

### 46 몸도 마음도 힐링

강릉 벚꽃과 제주 유채

### 52 아이러브 Culture

문화가 두드린 봄

### 57 Ombudsman

### 58 퀴즈 및 엽서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17년 봄호 통권 88호

발행일 2017년 4월 10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정희 02-590-6895

사보기자 이수화혁(이장구·김태준) 이수페타시스(이준경·김다혜)  
이수건설(김다나)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정유숙)  
이수엠지스(김영은) 이수엑사캠(한재원) 이수엑사보드(김슬기)  
이수엑사보드 인천공장(심경미)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홍주희, 디자이너 민수기

인쇄 삼우아트(주)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수페타시스

### 제252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은 지난 3월 6일, 제252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수페타시스 김성민 대표이사, 대구고용노동청장,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 협력사 대표 등 4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이날은 현장 내 작업공정, 화재 폭발사고 예방대책,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더불어 대구고용노동청 이태희 청장은 앞으로도 협력사와 공생 협력해 더욱 발전하는 모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김성민 대표이사는 협력사와 안전하고 건 강한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상범 회장, 직접 현안 파악하고 격려의 말 전해

###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 방문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은 지난 3월 10일,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을 방문해 공장 현안을 파악하고 임직원들에게 주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고부가 제품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품질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임직원들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만찬에서는 생산 현장에 관한 여러 애로사항을 들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이수화학

### 전임직 승진자 과정 교육 실시

이수화학은 2017년 전임직 승진자 38명을 대상으로 '승진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2월, 총 2차수에 걸쳐 경주 '황룡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신입 승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바람직한 역할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협업 등의 강의를 통해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며, 임원들과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도 나누었다.



## 이수건설

### 다양한 분야에 연이은 수주와 분양

이수건설은 지난 2월 '대전 와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을 총 공사금액 1,323억 원에 수주했다. 1월에는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빛찬유 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경부선 노량진역 구내 철도횡단 환승통로 연결 공사'를 각각 수주했으며, 3월에는 '대구연경지구 외 도로 및 오수간선관로 건설 공사' 수주에도 성공했다. 5월에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위치한 총 55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에 나선다.

## 이수시스템

### 글로벌 HR솔루션 구축 프로젝트 수주

이수시스템은 지난 1월 '영원무역 글로벌 HR솔루션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영원무역은 해외 유명 바이어들로부터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수주 받아 해외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표 브랜드로는 '노스페이스'가 있다. 이수시스템은 영원무역의 사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데다 해외 현지 공장의 전자결재 등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형 글로벌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이수창업투자

### 상영 작품 소개

이수창업투자는 한국영화 및 외국영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 임직원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3월에 개봉한 한국영화 <조작된 도시>, <더 킹>이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상영했고, 4~6월에는 한국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 <장산범>, <군함도>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상영작품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가저**

이수앱지스는 지난 3월 28일 창립 1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이 함께 볼링을 치고 장기근속자 6명에게 포상을 진행했다. 이수앱지스는 3개의 본·지점으로 나뉘어 있어 전 직원들이 함께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기념행사로 인해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신년맞이 청계산 산행**

이수엑사캠은 지난 1월, 신년맞이 전 직원 청계산 산행을 진행했다. 이수봉을 향해 오르는 직원들은 업무적인 대화를 벗어나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으며 동료애를 다졌다. 정상에서는 각 팀별로 준비해온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팀웍을 돈독히 하고, 2017년 이수엑사캠의 경영 목표 달성을 기원했다.

## 이수C&E

# 'CGV 골든 에그 어워즈' 최고의 OST 부문 수상

글 \_ 정경진 대리(이수C&E 마케팅팀)



제1회 'CGV 골든 에그 어워즈'에서 이수C&E가 배급한 영화 <싱 스트리트>가 최고의 OST 부문을 수상했다. 2016년 처음으로 개최된 '골든 에그 어워즈'는 CGV에서 한 해에 개봉한 영화 중 분야별로 최고의 작품과 배우를 선정하는 일종의 영화 시상식이다. '골든 에그'는 CGV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평가 함께 분야별 점수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제 관람객들이 남긴 생생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다. '골든 에그 어워즈'는 작품별 골든 에그 지수를 기준으로 후보 작품들을 선정하고 수상작 역시 관객들의 투표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시상식보다 의미가 있다.

이수C&E가 수상한 <싱 스트리트>는 <원스>, <비긴 어게인>의 존 카니 감독이 만든 3번째 음악 영화로 이국적인 도시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첫사랑에 빠진 소년이 얼떨결에 밴드를 만들게 되면서 자신의 꿈과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다. 영화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풋풋한 첫사랑과 꿈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잘 표현해냈다. 개봉 당시

많은 관객들의 '인생영화'로 꼽히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지난해 이수C&E가 배급한 영화 중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수상작으로는 감독 부문 <동주>의 이준익 감독, 배우 부문 <럭키>의 유해진, 스토리 부문 <스포트라이트>, 영상미 부문 <정글북>, 종합 1위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 영예를 안았다.

이수C&E는 매년 다양한 영화들을 배급하고 있다. 2월에는 구글어스로 25년 만에 집을 찾게 된 한 남자의 감동 실화를 그린 <라이언>을, 3월에는 강예원, 한채아 주연의 걸크러쉬 액션 코미디 영화 <비정규직 특수요원>을 개봉했고, 4월에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범인을 쫓는 추격 실화 <파트리어트 데이>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넵>, 싱글맘의 이야기를 그린 리즈 워더스푼 주연의 <홈 어게인> 등이 준비 중이다. 코미디부터 애니메이션,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선보일 만큼 올해도 많은 관객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대해본다.



## 꽃보다 반려동물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수인들의 이야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한국 전체 가구의 1/5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른다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동반자로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준다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그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이수인들을 만나보자.

대담 진행 \_ 김정희 대리((주)이수 브랜드관리팀)

#### 주인님과 반려동물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다나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건설 설계 조경팀에 근무하는 김다나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온 토리는 푸들이고요, 올해로 7살이 되었습니다.

**여진주 사원** 이수엑사보드 영업팀 여진주입니다. 저희 아가는 남자이지만 이름은 체리, 나이는 17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젠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어요.

**천유라 사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수엑사보드 인천공장 생산관리파트 천유라입니다. 제 반려동물은 달이라는 고양이입니다. 터키시 앙고라 종으로 이제 9살이 되었어요.

**송기원 사원** 이수엑사캠 관리팀 송기원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이자 가족인 쭈쭈는 3살입니다. 저희 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쭈쭈는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귀여운 친구죠.

####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김다나 과장** 시댁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

요. 그런데 마침 제 생일에 새끼를 낳았더라고 요. 그 아이가 바로 토리입니다. 웬지 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데려오게 되었죠. 지금은 매년 함께 생일파티를 하고 있어요.

**여진주 사원** 체리는 본래 제 동생 친구네 강아지였어요. 우연치 않게 그곳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늘 목줄에 묶여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주인도 바쁜 탓에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겠다고 부탁해서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

**천유라 사원**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서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정 분양을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달이를 만나게 되었죠. 절 만날 때는 3살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9살이 되었네요.

**송기원 사원** 쭈쭈는 적적해 하시는 엄마를 위한 아빠의 깜짝 선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손이 참 많이 갔어요. 대소변, 목욕, 산책 등. 하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죠.

“토리는제게 진정한 친구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죠!”

김다나 과장



“  
언제나 나만 바라보는,  
언제나 내 편인 반려동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답니다!  
”

**반려동물로부터 위안이나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김다나 과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옆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큰 위로를 받는 건 아닌지 생각해요. 동물이 말을 한다면? 웬지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진주 사원** 같이 잠을 자고, 숨 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생각해보니 체리의 존재 자체가 제겐 행복이네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받아서, 어떤 걸 해줘서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천유라 사원** 서로 교감을 해서일까요? 제가 우울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다리 위에 올라앉아요. 또 자려고 누우면 '같이 자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눕죠. 이렇게 조용히 곁에 다가와 줄 때 큰 위안이 됩니다.

**송기원 사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역시 꾸꾸의 모든 것이 행복이에요. 같이 자고 먹고, 산책하고 또 퇴근 후에는 제일 먼저 뛰어 나와 반겨주고... 생각해 보니 정말 고마운 가족이네요.

**반려동물로 인해 나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요?**

**김다나 과장** 반려동물과 함께하다 보니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동물보호단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장 볼 때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일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직원들.  
왼쪽부터 김다나 과장(이수건설), 여진주 사원(이수엑사보드), 천유라 사원(이수엑사보드), 송기원 사원(이수엑사캠)

부러 동물복지제품을 골라서 구매하게 되네요.  
**여진주 사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체리가 온 뒤로는 많이 부지런해졌죠. 아기처럼 모든 걸 챙겨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번거로움조차도 즐겁고 행복하네요.

**천유라 사원**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꼭 참고 속으로 힘들어하는 편이었어요. 숨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이 덕에 그런 일들이 많이 줄었어요. 달이와의 교감이 위로가 되고 제게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송기원 사원** 퇴근 후 집에 가더라도 가족들과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

지만 지금은 재간동이 꾸꾸 덕에 할 이야기들이 많죠. 꾸꾸가 오늘은 뭘 했는지, 어떤 귀여운 행동을 했는지 등등, 사소하지만 가족들을 모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요?**

**김다나 과장** 무작정 외로워서, 예뻐서 키우기 보다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가 태어나서와 같은 이유로 파양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반려동



물은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여진주 사원** 반려동물은 단순히 먹이만 주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고 교감을 해야 하는 존재죠. 키우기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주변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키우셔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막상 돌보는 것이 귀찮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안타까운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천유라 사원** 흔히 고양이는 외로움을 타지 않아 강아지보다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도 괜찮고 키우기도 수월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직접 키워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고양이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게 아니라 강아지

만큼 티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달이는 퇴근 후 제가 집에 돌아오면 열쇠를 곱기도 전에 안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웁니다. 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안아줄 때까지 울며 따라 다니죠. 고양이 역시 다른 반려동물처럼 많이 놀아주고 많이 안아주며 애정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귀여워서 외로움을 안타니까 내가 심심할 때만 찾을 생각이라면 키우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기원 사원** 반려동물을 선택할 때 무조건 예쁜 외모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경우, 견종별로 성격과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내 스타일에 맞는 강아지의 견종은 무엇인지 등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뻐서, 귀여

워서라는 이유로 키우기 시작하다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예쁘지 않을 때 파양이나 유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려동물은 충동에 의해서가 아닌 신중한 고민과 진지한 선택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나만의 반려동물 키우기 꿀팁을 공유해주세요!**

**김다나 과장** '노즈 워크(nose work)'란 용어를 아시나요? 노즈 워크는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지능 발달을 도와주는 일종의 놀이입니다. 특히 산책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시중에 노즈 워크를 위한 담요나 기타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노즈 워크'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손바닥만한 종이 여러 장에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싸서 구겨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부터 어렵게 찾아야 하는 곳 등 다양하게 숨겨주세요. 강아지는 후각을 이용해 간식 찾기를 하면서 재미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진주 사원** 요즘은 반려견들과 함께 드라이브나 여행을 즐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차를 타면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유독 힘들어하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혹시라도 반려견이 차를 타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조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소 차에 익숙해지도록 짧은 거리라도 함께 이동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사람보다 더 쉽게 더위를 타는 반려견을 위해 자동차 내부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해주세요. 혹, 여행을 준비한다면 분실방지용 목걸이나 최근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달이는 제게 영원한 아기랍니다. 그저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아기죠!”

천유라 사원

“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사랑과 책임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



“쭈쭈는 제게 비타민이에요.  
제 삶의 활력소거든요.  
쭈쭈 덕에 웃고 쭈쭈 덕에 힘이나요!”

송기원 사원

### 쭈쭈

“나는 시츄 종이고 이름은 쭈쭈, 나이는 3살, 능글한 남자야. 하지만 커다란 눈과 긴 속눈썹이 미스 시츄 뺨칠 외모지. 이래 뻔도 애교도 많고 스킨십도 좋아해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어. 간혹 너무 예뻐해서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

### 달이

“나는 터키시 앙고라 종으로 이름은 달이고 나이는 9살이야. 수줍음이 많고 낮을 가려서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몸집은 있지만 특기는 높은 곳에 재빨리 올라가야. 언제나 날 아기처럼 안고 예뻐해 주는 유라에게 항상 고마워.”

### 토리

“나는 푸들 토리아. 7살이고 사람을 좋아해. 간혹 사람을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친절하고 사랑 많은 다나 덕분에 사람에게 호감이 많아. 오늘 사진 찍느라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해.”

### 체리

“난 체리아. 간혹 이름을 듣고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올해로 17살이 된 남자지. 아마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도 한참 지났을 거야. 하지만 진주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나이치고는 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체리는 제 운명이에요. 3번을 잃어버렸었는데 운명처럼 제게 무사히 돌아왔어요!”

여진주 사원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외국에서는 출입 시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건강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어요.

**천유라 사원** 동그랗고 촉촉한 까만 눈의 고양이는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정면보다는 위나 옆을 볼 때 찍는 것이 가장 예쁘답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에는 바로 물을 끼얹거나 샤워기를 대기보다는 발부터 조금씩 물을 적셔주며 천천히 목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에 비해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놀라서 도망가면 그날 목욕은 어렵게 됩니다.

**송기원 사원** 저는 쭈쭈를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빠르게 찾는

방법에는 SNS 글 올리기, 전단지 배포, 동물병원 찾아가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단지는 실종된 후에 만들어 인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가 사진만 넣어 인쇄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죠! ‘설마 내가 잃어버리겠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여러 방법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안전하죠!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번거로움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당신은 반려동물의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시스템 솔루션개발팀

## 솔루션 업계를 빛낼 우리는 호기심 박사

**ISU**  
이수시스템



이수시스템은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과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IT서비스 기업이다. 오늘 만날 솔루션개발팀은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부서로 이수시스템 내에서도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다. 1990년 국내 ERP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솔루션을 공급해온 솔루션개발팀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최인철 차장, 김태엽 차장, 서한석 팀장, 박정열 과장, 김경현 인턴사원

### 차세대 솔루션 사업은 우리가 이끈다

이수시스템 솔루션개발팀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각 부서들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리더다운 리더 서한석 팀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책임을 담당하는 최인철 차장,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는 기술 리더이자 아이디어뱅크인 김태엽 차장, 솔루션개발팀의 팔방미인 박정열 과장,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푼돌 뭉친 김경현 인턴사원이 한 배를 타고 있다.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는 솔루션개발팀은 ERP시스템 구축은 물론 독자적인 OPTI-HR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인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객들의 비즈니스 편의를 향상시키는 게이트인 (GateIn), 엠케어(Mcare) 등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등 IT 영역으로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솔루션개발팀의 무기는 호기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솔루션개발팀의 업무는 늘 고난의 연속이다. 작년부터 진행했던 모바일 앱 개발, 비콘(Beacon) 서비스의 적용, 챗봇(Chatbot) 서비스 등이 그랬다. 아무런 기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는 일은 자칫 실패를 좌절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지만 서한석 팀장은 이럴 때마다 여느 리더처럼 피나는 노력이나 불굴의 의지를 주문하지 않는다.

“이미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팀원들에게 더 열심히 뛰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전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단순한 주문을 합니다. 팀원들끼리 '호기심'을 발휘해 보라고 말이죠. 호기심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되고 팀원들 간 자연스런 토론을 유도합니다.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영킹 실타래를 술술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팀은 늘 새로운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창조'의 고통이 버거울 때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호기심 충만한 팀원들이 있기에 오늘도 기꺼이 즐거울 수 있다.

#### 시간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고

2017년 솔루션개발팀은 4개 이상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통 1개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년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목표다.

“최근 IT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구축방법을 설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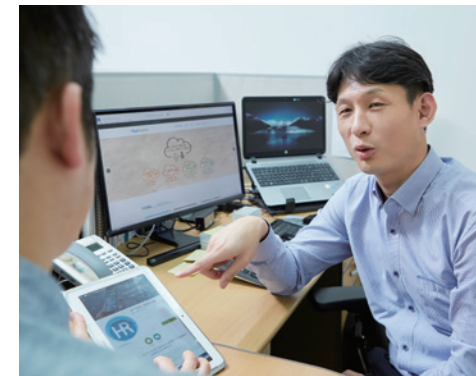
솔루션을 만들 때는 계획, 분석, 설계 등 일련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솔루션 개발팀은 IT 환경의 속도에 맞춰 이 과정들을 각각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런 방식은 새로운 솔루션을 런칭하는데 평균 2~3개월이면 충분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루션 개발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척이나 경제적이지만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문화를 좀 더 매끄럽

게 바꾸려는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죠.”

서 팀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과정과 형식에서 '권위'를 벗어던졌다. 논의나 의사결정을 위해 서류를 챙겨두고 회의실로 향하는 것도 자제한다. 일을 하다가 의문이 들거나 공유해야 하는 정보가 있으면 의자만 돌려 앉아 소통을 시작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빠르게 의사결정을 진행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탁월한 솔루션은 각 분야의 팀원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 탄생한다. 서 팀장은 그 분야에서 만큼은 팀원 개인이 최고의 실력자라고 인정하고 작은 생각까지도 존중해 최대의 시너지를 유도한다. 그래서 업무에 돌입하면 팀의 구성원 모두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의 협력자로 분한다.



#### We are ready!

그간 솔루션개발팀은 솔루션 개발을 비롯해 마케팅, 블로그 운영 등 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것이 있다. 바로 개인의 역량과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 그리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탄탄한 팀웍이다.

“아직 본격적인 연구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고, 기른 땅에서 싹한 열매가 맺히듯 곧 이수시스템의 이름을 알릴 멋진 솔루션을 내보일 겁니다.”

자신에 찬 서 팀장의 말에 팀원들도 입술을 꼭 다물며 굳은 의지를 내비친다. 이제 막 운동화 끈을 질끈 맨 이수시스템의 솔루션개발팀. 반짝거리는 눈빛과 그들의 하모니가 과연 어떤 솔루션을 탄생시킬지 눈여겨 볼 일이다.

# 내 인생을 바꾼 1%의 경험

끼와 재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신입사원들의 이야기 '이수일보'. 특히 그 중에서도 '내 인생을 바꾼 1%의 경험'을 소개한 코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두 개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 I'm 이수건설 기획팀 이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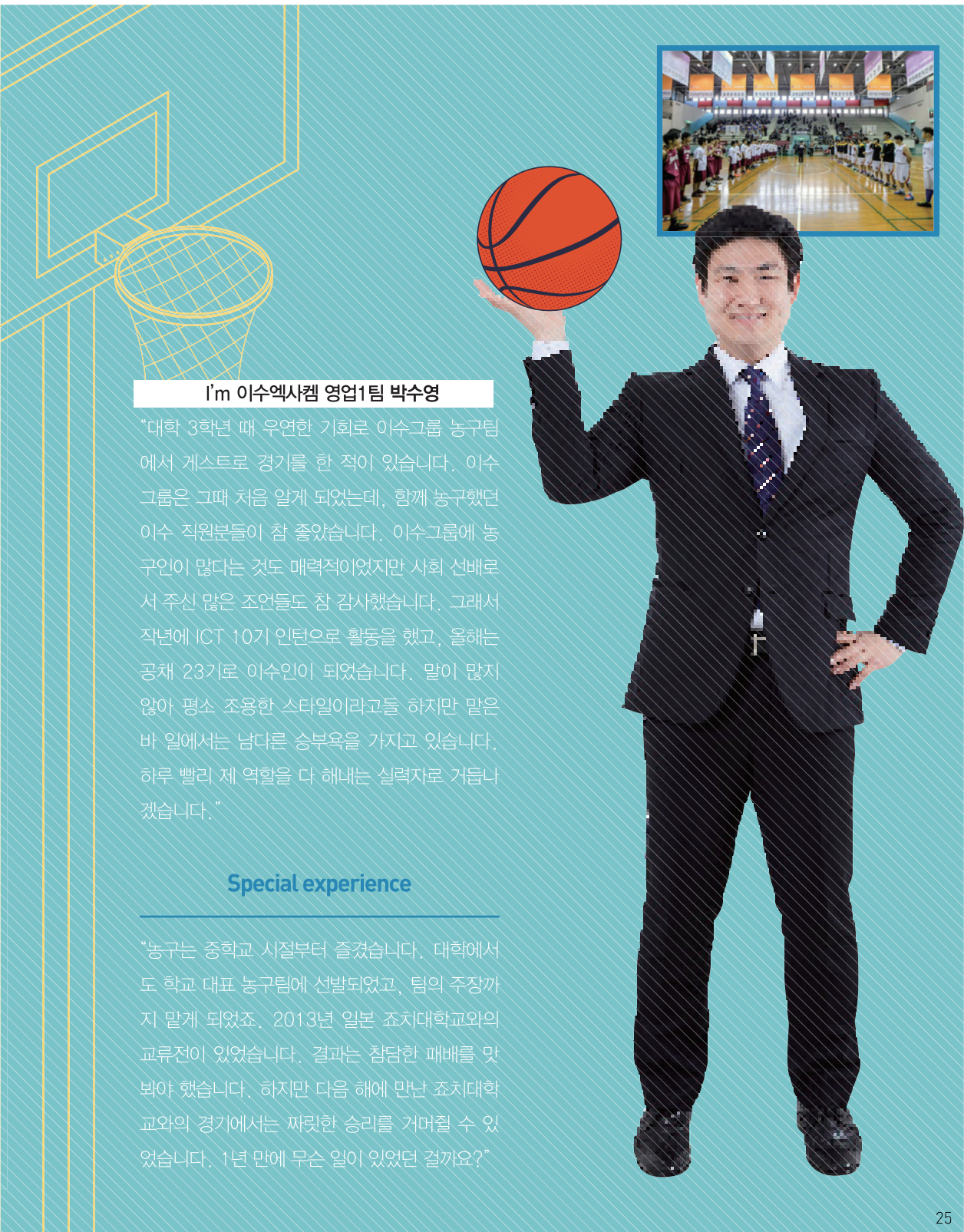
"저는 ICT 10기로 활동하면서 체계적인 ICT 프로그램과 친절하고 따뜻한 임직원분들에 이끌려 이수그룹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툰 신입사원이지만 경험과 실력을 쌓아 자랑스러운 이수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Special experience

"제겐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치어리더 부단장을 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영어도 유창하지 않았고 문화 차체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죠! 모든 것이 서툰 제가 어떻게 미국 여고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치어리더를 넘어 부단장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 본 코너는 신입사원 입문과정 커리큘럼 중 하나인 '이수일보' 콘텐츠에서 발췌했습니다.



### I'm 이수엑사캠 영업1팀 박수영

"대학 3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이수그룹 농구팀에서 게스트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그룹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함께 농구했던 이수 직원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수그룹에 농구인이 많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지만 사회 선배로서 주신 많은 조언들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ICT 10기 인턴으로 활동을 했고, 올해는 공채 23기로 이수인이 되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 평소 조용한 스타일이라고들 하지만 맡은 바 일에서는 남다른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 역할을 다 해내는 실력자로 거듭나겠습니다."

### Special experience

"농구는 중학교 시절부터 즐겼습니다. 대학에서도 학교 대표 농구팀에 선발되었고, 팀의 주장까지 맡게 되었죠. 2013년 일본 조치대학교와의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만난 조치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짜릿한 승리를 거머질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치어리더 오디션 합격!

“미국 유학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치어리더가 돼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영화 (Bring it on)을 보고 치어리더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를 꿈꾸지 않는 여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죠. 오디션 날도 수많은 경쟁자들을 보고 도전에 의미를 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합격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디션에 통과했다고 정식 부원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간의 자숙훈련에 통과해야만 유니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 진심은 통한다!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동작도 모르는 기초도 없는 제겐 말 그대로 자숙훈련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칼군무를 위해 작은 호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았고 인간 피라미드, 점프, 토스 등을 위한 체조기술과 근력 키우기 훈련이 강도 높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웃었고, 유창하진 않았지만 팀원들과도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저는 정식 부원이 될 수 있었고 결국 팀원들에게 인정받아 부단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연습, 연습, 연습!

“실은 2013년 조치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진 뒤로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 팀은 바로 내년 경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기 당시의 영상을 수없이 되돌려보며 상대의 작전은 무엇이었는지, 상대 선수의 약점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끊임없는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저는 왼손이 약했기 때문에 일부러 왼손 드리블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훈련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줄게 돼 학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아끼고 쪼개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1년 동안은 오로지 학과 공부와 농구에만 매달린 셈입니다.”

### 포기는 없다! 승리만 있다!

“결국 2014년 경기에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버저가 울리기 전까지는 저희 팀이 이긴 줄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점수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경기가 끝난 뒤 저희 선수들의 유니폼은 여러 군데 찢겨져 있었습니다. 과격한 경기로 상대방 선수들이 많이 잡아챘기 때문이죠. 힘들고 거친 경기였지만 저희들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웨딩촬영 하던 날

사연\_ 이슬 사원(이수엑사캠 관리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야외 스냅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치 좋기로 소문난 제주도에서, 그것도 겨울에만 핀다는 동백꽃과의 촬영이라니 너무나 설레었죠. 그런데 촬영 당일,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과 우박이 내렸습니다. 과연 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촬영 날이 12월 29일이었습니다. 따뜻한 제주라지만 한겨울이니 얼마나 추웠을까요? 망사 드레스 한 장을 입고 오들오들 떨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저어집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사진을 받고 나서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죠! 다들 웨딩촬영은 너무 힘들어서 두 번할 것이 못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따뜻한 봄날 가까이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 가이세키 요리

사연\_ 한송이 님(이수건설 성남여수택지현장 강대관 대리 배우자)

작년 겨울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 온천 료칸을 다녀왔습니다. 류머티즘, 신경통, 피부병 등에 좋다는 우레시노 온천을 즐긴 뒤 가이세키 요리를 마주했습니다. 가이세키는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겨 나오는 일본의 연회용 코스 요리라고 합니다. 국, 사시미, 구이, 조림을 기본으로 튀김, 찌, 무침 등과 밥과 국, 쓰케모노, 과일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양과 색도 예쁘지만 고른 영양과 자연의 향이 느껴지는 담백한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이 끝난 지금에도 그때의 여운이 남아 종종 이 사진을 들춰보곤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이유로 저희 부부는 일본 온천 료칸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입안의 힐링까지 만족시켜주는 료칸 여행을 여러분에게도 추천해드립니다.

###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결혼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hee895 / 이메일: jhk653@isu.co.kr

# 애플의 성공전략부터 이수엑사보드의 첨단기술까지

글 \_ 이재용 부장(이수엑사보드 인사총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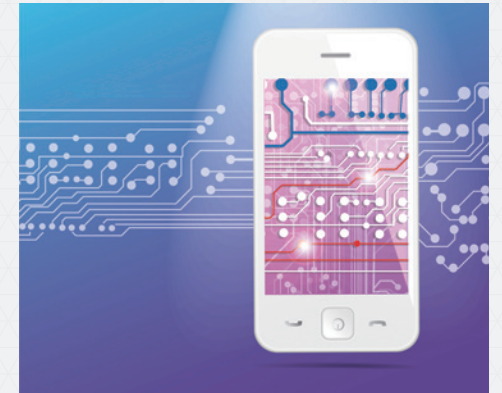


놀랍게도 애플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초기에는 90%가 넘었던 것이 그나마 많이 낮아져서 이 정도다. 경이롭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 경쟁자로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인 삼성전자가 있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 화웨이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인류 최초로 Smart phone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Brand value도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보다 연관되는 이유는 애플의 판매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애플은 고가폰만 팔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다양한 고객층을 커버하기 위하여 저가폰부터 시작해, 출시하는 Smart phone의 Model만도 보통 10여 가지가 넘는

다. 하지만 애플은 iPhone과 iPhone Plus 두 종류만 판다. 소위 고부가가치 모델인 Flagship만 가지고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다. 제품이 단순하면 여기에 따르는 제조원가도 혁신적으로 감축된다. 같은 종류의 부품을 대량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부품 가격 협상력도 우위를 점한다. 대량의 단일 모델의 경우 생산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성이 커진다. 게다가 애플의 브랜드 파워는 판매 촉진비용인 Marketing Cost(보조금 등)를 절감시킨다. 애플의 압도적인 영업이익의 Market Share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애플도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해

가 갈수록 영업이익의 Market Share는 점점 줄고 있다. 그동안 외주생산 체제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 이제는 아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미국 내 공장 이전 문제가 큰 압박이다. 만약 애플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현재보다 인건비, R&D 투자, 부품 조달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결국 제품가격은 크게 오르게 된다.

여기서 잠깐,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Flagship model을 살펴보자. Flagship model이란 각 회사마다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능과 특징을 보유한 주력 모델을 말한다. 애플사의 'iPhone'시리즈, 삼성의 'Galaxy S'시리즈 및 'Note'시리즈, LG의 'G'시리즈와 'V'시리즈, 화웨이의 'P'시리즈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Flagship Model에는 지문·홍채 인식부터 인공지능(AI)까지 각 사의 최고 기술이 모두 집적되어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기능과 기술들이 선보이게 될 것이다. 물론 어느 기능이 어느 시점에 추가로 장착될지는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부가기능이 더해질수록 Smart phone의 핵심 부품인 PCB에는 더 미세한 pattern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정된 크기의 Smart phone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려면 그만큼 밀집된 전기회로가 설계되어야 하고, 회로가 복잡해질수록 더 세밀(fine)한 회로가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구현되고 있는 가장 정밀한 회로의 크기는 30미크론 즉 0.03mm로 육안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 정밀**



**한 회로를 정확히 구현해 내기 위한 첨단 기술을 이수엑사보드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수엑사보드는 2004년 舊유료써킷을 인수하며 설립된 회사다. 처음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안산과 인천 공장까지 약 5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수엑사보드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PCB를 개발 및 생산하는 곳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과 LG 양사의 Flagship에 장착되고 있다. 혹시 4월 출시를 앞둔 Galaxy S8을 포함한 Galaxy S시리즈나 Note시리즈 그리고 LG의 G시리즈나 V시리즈를 포함하여 현재 출시된 G6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제품의 PCB는 이수엑사보드의 제품일 것이다. 이수엑사보드 PCB가 삼성과 LG 모두의 Flagship에 채택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미세회로의 구현력에 있다. 현재도 더 미세한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공법 개발과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더불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장용 PCB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Panasonic사와 협력하여 일본 Toyota자동차에 납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이수인에게 권하는 김상범 회장의 '좋은 책'



매번 서재의 책장 앞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책을 권해볼까?'  
이 책 저 책을 만지작거리며 고심 끝에 한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쳐다보며 마음을 담죠.  
내가 느꼈던 그 이상의 배움과 가치가  
우리 이수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어떤 의식 같은 이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한데요.  
여러분도 이 한 권의 책으로 행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질문,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 인생의 의미

| 저자 | 테리 이글턴  
| 출판사 | 책읽는수요일

### 저자 소개

저자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영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비평가이자 이론가이다. 1943년 영국 셸포드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연구 교수를 거쳐 랭커스터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사회, 정치, 문화에 관한 많은 책을 펴냈다. 그는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정치사상적 부침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을 때도 시대의 유행을 좇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실존주의, 페미니즘 등 시대의 흐름을 끌어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지평을 넓혀왔다. <인생의 의미>에서 테리 이글턴은 철학과 문학을 가로지르며 생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더불어 '삶의 의미'라는 문제에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답들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문학이론입문>, <미학의 이데올로기>, <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 <이론 이후>, <성스러운 테러>,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악> 등이 있다.

살아 있는 지성 테리 이글턴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이 짧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 근대의 일이라 지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걸출한 저격수답게 오늘날의 철학과 세속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성취를 향한 개별적 탐색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화해시키며 ‘삶의 의미’라는 문제에 답한다.

**철학과 문학을 가로지르는 입체적 탐색과 성찰**  
니체, 쇼펜하우어, 마르크스, 프로이트, 사르트르, 비트겐슈타인, 데리다, 들뢰즈 등의 철학과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햄릿>, <맥베스>,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헨리 제임스의 <웅단 속의 무늬>, 안톤 체홉의 <세 자매> 등의 뛰어난 문

학 작품을 통해 오늘날 인간이라는 존재의 현실과 생의 진실을 탐구한다. 문학과 철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을 위한 안성맞춤의 책이기도 하다.

**허무와 교만을 넘어서기 위한 현대의 인생론**  
(인생의 의미)가 테리 이글턴의 수많은 저작 중 역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180여 쪽이라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서양 지성사의 방대한 철학적, 문학적 유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삶'이라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엮어내고 있다. 학계와 언론은 <인생의 의미>를 허무와 교만을 넘어서기 위한 현대의 인생론으로 추천했다.

### 책 속으로

- 모더니티는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정치적 문제를 전부 날려버린 시대이다. 근대에는 삶의 의미라는 경기장에서, 각자가 상대방에게 KO 펀치를 날릴 수는 없는 상태에서 겨루는 무수한 도전자들이 존재해 왔다.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도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종의 약순환 속에 있음을 발견한다. 삶의 의미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다. p.57
- 인간은 자기 결정적이지만 자연, 세계, 그리고 인간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는 기반 위에서만 자기 결정적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미 의미의 한복판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미들(우리가 결코 선택한 적이 없지만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의미들)을 통해서 엮인다. 사회성, 성, 죽음, 놀이, 애도, 웃음, 노동, 소통 등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삶의 계획은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삶의 여러 핵심적인 특징들은 전혀 개인적이지 않다. p.144
- 삶의 의미는 문제에 대한 해답 속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실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삶의 의미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삶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삶의 어떤 특질과 깊이, 풍부함과 강렬함이다. p.175

OUT  
SIDE

## 카페의 진화

사방이 카페이다. 카페가 등장하기 전에는 다방이었다. 카페의 등장으로 한때는 퇴물처럼 느껴지던 이름이 어느새 고풍스럽고 예스러운 단어의 반열에 오른 듯하다. 여전히 다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곳을 발견하면 주인의 철학적 감수성마저 느끼게 된다. 커피, 조선에서는 '설탕 탄 탕국'이었고, 유럽에서는 '쓴맛 나는 검은 물'이라 불렀다. 그런데 커피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마셨던 공간의 기능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왜 집이 아닌 '커피집'을 따로 두고 커피를 즐긴 것일까. 왜 사람들은 카페라는 공간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글 \_ 이락희(칼럼리스트)



지금 대한민국의 거리는 온통 카페가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광화문 사거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카페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사방에서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큰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택가의 작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소규모 카페들이 들어앉아 있다. 심지어 편의점조차 '1,000원의 휴식을 주겠다'며 카페 흉내를 내고 있지 않은가. 인구 수로는 세계 27위에 불과하지만 스타벅스 매장 수로는 5위를 자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 흔한 진동벨 서비스도 없어 사람들을 줄 세우게 만들면서 오히려 매출 1조 원을 넘겼다고 하니 카페 강국도 틀린 말이 아니다.

카페의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커피 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비해 카페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대한민국, 이제 카페 종주국의 위상을 넘보고 있으니 확실히 연구대상인 나라이다.

### 카페는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산실이 되었나

카페라고 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노천카페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카페의 역사를 되짚어가다 보면 17세기 후반, 영국의 커피하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카페라는 말 대신 '커피하우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에는 커피하우스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곳에서 영국인들은 커피 한 잔을 놓고 신문을 읽거나 자유로운 토론을 즐겼다.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여 '페니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는 당시 입장료가 양초 한 자루 가격인 1페니에 불과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곳들은 당대의 지식인들과 문학가들이 모이는 연회의 장소이자 정치토론을 벌이는 장소로 발전하면서 영국의 문화사와 지성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는 커피하우스가 주로 사교와 문학 활동의 중심지인 런던과 대학가인 옥스퍼드에서



카페라고 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노천카페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카페의 역사를 되짚어가다 보면 17세기 후반, 영국의 커피하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꽃피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당시의 영국왕은 우려하기도 했다. 1675년 말 국왕이던 찰스 2세는 커피하우스를 '놀고먹으면서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의 놀이터'라고 비판했고, 이어 커피하우스 전면 폐쇄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1주일 만에 왕의 명령은 철회되었다고 하니 커피하우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커피하우스가 단순히 망중한을 즐기며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공간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일설에는 영국에서 커피하우스가 탄생하게 된 것은 날씨도 한몫했다는 주장이 있다. 번덕스러운 날씨로 옥외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처럼 광장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광장카페, 프랑스처럼 길거리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노천카페 같은 유럽 대륙의 카페문화가 번성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17세기 초까지 성행하던 귀부인 중심의 살롱문화가 쇠퇴하고 18세기 들어 카페가 대중화되었다. 폐쇄된 살롱을 벗어난 덕분에 문인들과 철학자 중심의 담론문화가 꽃피기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프랑스대혁명 직전까지 파리에 약 2,000개 이상의 카페가 들어서게 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정부와 교회 등 기존 권력을 비판하고 이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했다.

### 설탕 탄 탕국을 마시던 다방에서 문화의 공간으로

그렇다면 카페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카페 역사는 어떤가. 성인 한 명이 1년간 마시는 커피의 양이 약 348잔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성인들은 거의 매일 커피



를 마신다는 뜻인데 한국에서 커피가 대중화된 것이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고종이다. 그는 아관파천(1896) 당시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다고 알려져 있다. 정관헌은 이를테면 흠카페인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초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쓴 미국인 퍼시벌 로웰은 이미 1884년에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아관파천보다 12년 앞선 기록인데다 '유행품'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커피를 즐기는 이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카페가 대중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전략이 문화통치로 바뀌면서부터이다. 이전에는 일본인들에게만 운영권이 주어졌던 다방을 조선인들에게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카페 역사에서 1960년대는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다. 전후의 혼란,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등 혼돈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와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다방도 문화공간으로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1961년 서울의 다방 수는 1,086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2012년 서울의 커피전문점 수가 2,170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다방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방이 지나치게 난립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얼굴마담', '레지' 같은 신종 직업군들이다. 어떤 것이든 대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격조'는 하락하게 마련이다. 커피의 품격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레지의 등장도 고종이 마시



던 '설탕 탄 당국'이 아니라 서민의 기호품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 중 하나였다. 다방이 '커피숍'으로 간판을 바꿔달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1988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두커피 전문점으로 알려진 '자딩'이 등장했다. 다방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 1996년 4만 1,008개소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듬해 IMF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혹자는 한국 카페의 역사는 별다방이라 불리는 스타벅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한다. 1999년 7월 스타벅스가 이화여대 정문 앞에 1호점을 낸 뒤로 본격적으로 원두커피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성공은 2000년대 들어서 커피빈, 이디야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치, 엔제리너스, 카페베네가 줄줄이 가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다방의 연대기에서 2000년대가 '커피전문점의 춘추전국시대'로 기록되는 이유이다.

### 경쟁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카페

카페의 역사를 돌아보면, 카페의 거품 논란 속에서도 후퇴가 없었다. 포화상태라는 말은 이미 6~7년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최근까지도 카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오히려 백화점은 물론 명품숍 매장 안으로까지 영토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면 무소불위의 힘마저 느끼게 된다.

카페의 영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등은 식사 메뉴를 개발해 '커피 파는 밥집'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2014년부터 '카



카페의 역사를 돌아보면, 카페의 거품 논란 속에서도 후퇴가 없었다. 포화상태라는 말은 이미 6~7년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최근까지도 카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페속 한 끼' 전략으로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다. 리소토, 그라탱, 라자냐 등의 메뉴까지 개발하여 커피와 함께 내놓고 있다. 탐앤탐스도 혼밥족들을 위한 1인용 또띠아 피자를 출시했다. 디저트 카페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카페들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곳이 투썸플레이스인데 디저트 종류만 160여 종에 이른다. 드롭탑은 수제 디저트로 승부를 거는 곳인데 매장에서 직접 구워내는 타르트가 대표적 제품이다. 커피 메뉴를 확대해 커피전문점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정공법을 택한 곳도 있다. 커피빈, 이디야커피 등이 이런 경우이다.



카페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왔다. 오늘날의 카페는 과거의 카페와 달리 사회와 정치활동의 중심이 아니다. 더 이상 카페에서 영국의 시민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이 탄생할 것 같지는 않다. 카페가 토론과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어떤 철학자는 오늘날의 커피점이 '상호작용의 장소'라기보다는 '공동 고립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나 홀로 앉아 쉬어가는 커피를 한쪽으로 밀쳐 둔 채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카페에 들어서면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는 말이다.

# 등잔 밑이 어두운 회사 앞 맛집 소개 × 이수페타시스 김다혜 사보기자

추천 맛집 \_ 롱브레드(Long Bread) 서래마을점(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28 공간빌라 B1, 02-3477-1255)

ISU 사보기자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한다. 회사 근처, 우리만 알고 있던 맛집을 이수가족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 사보기자와 함께 하는 맛집 찾아 삼만리. 이번호에는 이수페타시스 김다혜 사보기자가 추천하는 서울 서래마을에 있는 '롱브레드'를 소개한다.



추천  
이유  
한마디!



시간에 쫓기며 허겁지겁 때우기 일쑤인 직장인들의 점심.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재즈가 흐르는 공간에서 여유로운 점심식사를 누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며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딱 이런 마음이 들 때 가면 좋은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회사에서 가깝고, 맛 좋고, 친절하고, 여유롭고, 게다가 비싸지 않은 곳, 서래마을 롱브레드를 소개합니다.

## 롱브레드 서래마을점에서 즐기는 푸짐하고 고급스러운 성찬

점심시간 한 시간의 일탈, 마음에 맞는 동료 한 두 명과 함께 맛집 나들이를 시작해 볼까요. 서래마을 골목 안에는 숨어있는 맛집들이 꽤 있습니다.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브런치 카페 롱브레드. 골목 안에 있는데다 간판도 요란하지 않아 '숨어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이죠. 그래도 입소문은 무서워서 점심시간이면 만석을 이룬답니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홀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어 문을 여는 순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테이블은 여러 개가 있지만 롱브레드의 편안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만끽하며 직원들의 친절하고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주방 맞은편에 놓여있는 긴 테이블이 좋아요. 이곳에 앉으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대가족이 쭉 둘러앉아 왁자지껄 떠들

롱브레드 입구 옆 간판과 실내 모습





치즈 버섯돌이 파니니 10,000원 / 오늘의 수프 7,500원 / 오렌지 주스 7,000원 /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 14,000원

며 식사하는 이탈리아 가정집의 주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분위기는 합격이죠. 이젠 주문을 해야 할 텐데, 메뉴가 꽤 많아서 뭘 고를지 고민이 될 사우들을 위해 수프, 샐러드, 메인메뉴, 음료까지 성찬을 즐길 수 있도록 몇 가지 추천을 해 볼게요. 롱브레드는 원래 샌드위치 브런치 카페를 표방하는 곳이지만 사보기자가 추천하는 메뉴는 파니니(panini)입니다. 파니니는 빵 사이에 치즈, 야채, 햄, 버섯 등의 재료를

간단하게 넣어 만든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를 말한답니다. 롱브레드라는 이름도 파니니에 사용되는 터키시 브레드에서 따왔다고 하니 정통 파니니 전문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오늘 주문한 파니니는 치즈 버섯돌이 파니니. 볶은 버섯과 치즈가 듬뿍 들어간 파니니인데 주방장의 솜씨 덕분인지 볶은 버섯에서 가벼운 불 맛도 느껴져요. 그런데 파니니를 자신있게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속을 둘러싼 빵 때문이에요. 터

키식 브레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릴에 구워 바게트처럼 바삭거리고 고소해서 빵을 베어 무는 순간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담백한 맛의 치즈 버섯돌이 파니니에 어울리는 샐러드로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를 골랐어요. 연어와 아보카도는 찰떡궁합인데다 발사믹 드레싱과 치즈 드레싱 등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어에 잘 어울리는 치즈 드레싱에 상큼한 발사믹 드레싱을 얹어 연어 특유의 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미식가들이 손꼽는 롱브레드의 숨은 고급스러움 중의 하나는 '오늘의 수프'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감자, 고구마, 당근, 호박, 브로콜리 등을 주재료로 한 수프를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밀가루 대신 감자를 베이스로 해서 맛이 정말 부드럽고 담백해요. 이번에 맛본 것은 고구마를 곱질째 갈

아서 만든 고구마 수프였는데 담백한 감자와 달콤한 고구마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목을 축여줄 음료수 한잔도 빠질 수 없겠죠. 생과일을 착즙한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는데 과육이 씹히는 생과일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았더군요. 파니니부터 음료까지, 이 정도면 2~3명이 함께 먹어도 부족하지 않게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비싸면 어저지' 걱정이 슬며시 들 수도 있어요. 롱브레드의 미덕 중 하나는 주변의 음식점들에 비해 푸짐하고 착한 가격입니다. 점심시간, 특히 봄이라 입맛도 없고 나른할 때 마음이 맞는 동료 한두 명과 함께 꼭 한번 둘러보세요. 힐링의 공간이 따로 있나요. 편안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롱브레드 주방과 메뉴판



화사한 벚꽃과 산뜻한 유채

## 4월은 꽃길만 걸어요

### 강릉 벚꽃과 제주 유채

붉은 동백과 산수유, 매화로부터 시작된 새봄은 화사한 연분홍 벚꽃 그리고 샛노란 유채가 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곁에 온다. 대관령 고개 너머 관동팔경 경포대를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벚꽃과 탐라의 쪽빛 바다처럼 넘실대는 노랑 유채밭은 봄이라는 계절을 눈부시게 장식한다. 자, 그동안 꽃샘추위 탓에 움크리고 있던 몸과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강릉과 제주로 떠나보자.

글 / 사진\_ 이마로





## 거울처럼 맑은 호수 물들이는 연분홍 꽃비

### 강릉 벚꽃

수백 년 전 조선시대, <관동별곡>의 저자 송강 정철은 강릉의 봄을 만끽했을까? 경포호 일대는 동해안을 따라 늘어선 빼어난 절경들을 가리키는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꼽히는 장소. 4월 이맘때면 경포호 주변을 둘러싼 벚꽃은 이미 치장을 마쳤다.

경포호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는 역시 경포대와 호반도로, 경포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경포대에 오르면 호반을 따라 벚꽃의 물결이 출

렁이는 근사한 광경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경포호 주변에 조성된 3km 길이의 호반도로는 만발한 벚꽃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거울처럼 맑다하여 '경포(鏡浦)'라 이름 붙여진 이 호수에는 예부터 다섯 개의 달이 뜬다는 낭만적인 구전이 깃들여 있다. 하늘의 달, 호수의 달, 바다의 달, 술잔 속의 달 그리고 님의 눈에 비친 달이 그것이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축제가 열리는데 이 기간에는 경포호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 소통량이 많아진다. 경포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호반 산책로를 따라 걸어서 이동하는 편이 훨씬 낫다.

① 강원 강릉시 경포로 365 / 033-640-4414(강릉시 관광안내소)

경포호와 어우러진 벚꽃나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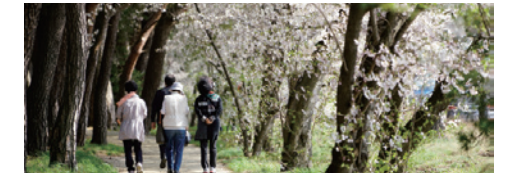


### 초당마을숲 사이로 난 오솔길 산책

강릉시 초당동에는 경포해안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푸른 소나무숲이 있다. 허균의 누이 난설현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지금의 강릉시 초당동 일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빼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허난설현이 아버지 허엽과 함께 살던 생가 터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숲을 가리켜 '초당마을숲'이라 부른다.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곧잘 찾는 초당마을숲에는 무려 3,000 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뻗뻗하게 들어차 있다. 바로 이 소나무 사이사이에 핑크빛 꽃을 화사하게 꽃피운 빛나무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다. 난설현 생가 터 옆의 너른 공터와 경포호수로 이어지는 산책로변이 가장 아름답다.

벚꽃을 질리도록 감상하고 난 뒤, 허균의 흔적을

초당마을을 산책하고 있는 여행객들



찾아 허균허난설현기념관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허균은 조선조 최대의 문제작 <홍길동전>의 저자. <홍길동전>에는 신분을 초월한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민초들의 꿈이 오롯이 담겨 있다. 초당마을숲 입구에 위치한 전통 한옥 형태의 기념관에서는 허균과 난설현의 일대기와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기념관 일대가 마치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 잠시 쉬어가기도 그만이다.

① 강원 강릉시 난설현로 193번길 1-16 / 033-640-4798(허균허난설현 기념관)

고즈넉한 풍경이 좋은 허균허난설현 생가





## 환상의 섬나라에서 만나는 노란 꽃의 물결

### 제주 유채꽃

유채의 빛깔이 가장 고운 계절 4월이 돌아왔다.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성산읍은 물론 이웃한 구좌읍 세화리에서 종달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와 중산간을 관통하는 정석항공관길 그리고 서귀포 산방산 아래 용머리해안까지 그 어느 곳에도 유채꽃을 만날 수 있다.

제주에서 유채 군락지로 가장 유명한 곳은 관광엽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성산일출봉이 자리 잡은 성산을 일원이다. 제주의 해안선을 일주하는 1132번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큰길에서 벗어나 오조리에서 성산포 감문교를 건너자마자 로터리에서 3시 방향으로 접어들면 광치기해변을 통과하게 된다. 바로 광치기해변 일대가 유채 군락지로, 곳곳에 어린 연인들은 물론 머리 희끗한 중년의 부부도 금세 동심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유채는 땅주인이 가꾸고 일군 것으로 1천 원의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

① 제주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 224-33

녹산로 드라이브길



### 유채와 벚꽃이 어우러진 녹산로 드라이브

바다와 어우러진 유채도 좋지만 오름으로 가득한 중산간지대의 유채밭 역시 아름답기는 매한가지다. 특히 표선면 가시리에서 조천읍 교래리 제동목장입구 삼거리를 잇는 녹산로는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이자 유채꽃 군락지다.

길이가 대략 10km에 달하는 녹산로는 외지인들에게 '정석항공관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 정석비행장과 정석항공관이 이 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 정석항공관은 항공기 조종석이나 엔진 내부를 볼 수 있는 절개 모형, 항공기의 제작과정이나 비행원리, 에어쇼 등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한다. 게다가 입장료도 없으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길 위를 달리면 차창 밖으로 드문드문 솟아오른 오름과 목장의 초지위를 뛰노는 말들이 한 폭의 풍경을 선사한다. 물론 녹산로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는 도로에 심어진 화려한 유채와 절묘하게 어우러진 빛나무로 시냇말로 '안구정화'의 힐링을 느낄 수 있다.

①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554(정석항공관)  
064-760-3544(서귀포 종합관광안내소)



제주에서 유채 군락지로 유명한 성산읍 일원

## 봄 감성 충전 100% 문화가 두드린 봄

바람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고 거리 곳곳에서 활짝 핀 꽃과 마주하는 계절. 봄이 오면 괜스레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똥똥 뚫다. 추억 속 수많은 봄의 풍경이 떠오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꽃길을 걷고 싶어진다. 봄 분위기를 고조시켜 겨우내 메말랐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노래와 영화, 시, 전시를 소개한다.

글 \_ 박소연(자유기고가)



### 벚꽃 엔딩

노래 버스커버스커 / 작사 작곡 장범준

‘〈벚꽃 엔딩〉이 음원 차트에 오르면 봄이 온 것’이라는 법칙은 올해에도 유효했다. 2012년 발표된 이후 〈벚꽃 엔딩〉은 특유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감성 돋는 가사로 ‘봄 캐롤, 벚꽃 연금, 벚꽃 쯤비’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봄 노래의 절대 강자로 자리잡았다. 가수 장범준이 이 노래 한 곡으로 벌어들인 음원 수익이 약 46억 원이라는 속설이 있는데, 실제 한 음원 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벚꽃 엔딩〉은 누적 다운로드 횟수에서 큰 편차를 내며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앨범에 수록된 〈여수 밤바다〉와 〈꽃송이가〉 등도 봄에 듣기 좋은 노래다.



### 봄봄봄

노래 로이킴 / 작사 로이킴 / 작곡 로이킴, 배영경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의 로맨틱한 감성이 담긴 〈봄봄봄〉은 〈벚꽃 엔딩〉에 대적할만한 봄의 연가다. ‘이 봄이 가기 전에 나와 함께 해 달라’는 고백이 담긴 가사와 부드러운 목소리, 잔잔한 기타 소리는 여심을 저격하며 봄의 낭만을 물들인다. 특유의 로맨틱한 분위기 때문에 봄 결혼식의 단골 축하곡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이 노래의 후렴구에서는 반복되는 ‘봄봄봄~’가사와 휘파람 소리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사랑에 빠지고 싶은 봄, 상큼 발랄, 두근두근한 감성을 충전하고 싶다면 〈봄봄봄〉이 제격이다.



### 봄 사랑 벚꽃 말고

노래 하이포(HIGH4), 아이유 / 작사 아이유 / 작곡 이종훈, 이재규

봄이 누구에게나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거리로 쏟아진 수많은 커플들과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 노래 때문에 솔로의 외로움이 증폭되기도 한다. 남자 아이돌 그룹 하이포(High4)와 가수 아이유가 함께 부른 〈봄 사랑 벚꽃 말고〉는 이러한 솔로들의 쓸쓸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다. ‘손 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라는 가사처럼 시방에 울려 퍼지는 봄, 사랑, 벚꽃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외친다. 가사와는 다르게 아이유의 상큼한 음성과 남성 보컬과의 아름다운 화음이 봄의 화사함과 닮았다.



## Movie 영화



### 4월 이야기

감독: 이와이 슌지 / 출연: 마츠 다카코, 다나베 세이치

〈러브레터〉로 대표되는 이와이 슌지 감독은 특유의 세심한 감성 표현과 아름다운 영상미로 유명하다. 〈러브레터〉가 흰 눈을 배경으로 첫사랑의 아련함을 담았다면 〈4월 이야기〉는 봄의 도시를 배경으로 여대생의 홀로서기를 그렸다. 갓 대학에 입학한 주인공 우즈키가 홀로 도쿄에 상경해 낯섦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주된 이야기다. 짝사랑, 대학생살, 자취생활 등 소소한 이야기가 곳곳에 그려지며 공감을 더한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봄, 변화와 도전을 앞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너는 내운명

감독: 박진표 / 출연: 황정민, 전도연

눈송이처럼 작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은 봄을 상징하는 풍경이다. 특유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몽환적인 분위기 덕분에 많은 영화 속에서 즐겨 사용되기도 한다. 황정민, 전도연 주연의 영화 〈너는 내운명〉에서도 이러한 벚꽃이 등장한다. 순박한 농촌 총각 석중은 다방 레지 은하에게 끈질기게 구혼하고 결국 결혼에 성공한다. 행복한 봄을 맞은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 누워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한다. 절정의 행복을 표현한 이 장면은 이후 찾아올 시련과 대비되며 아름다웠던 때의 추억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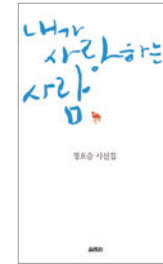


### 건축학개론

감독: 이용주 / 출연: 엄태웅, 한가인, 이제훈, 수지

〈건축학개론〉은 가수이자 배우인 수지를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시킨 영화다. 개강을 맞은 봄, 건축학개론 강의를 듣던 승민은 음대생 서연을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된다. 이후 서연과 친구가 되며 승민은 짝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지만 결국 고백하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과거 첫사랑의 추억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 〈건축학개론〉은 개봉 당시 '첫사랑 신드롬'을 일으키며 400만 관객을 돌파, 로맨틱 장르 영화 중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흔히 청춘을 인생의 봄이라고 말한다. 〈건축학개론〉과 함께 젊고 싱그러웠던 스무 살의 추억, 그 봄날을 회상해보면 어떨까.

## Poem 시



### 봄길

저자: 정호승

봄이 아름답고 반가운 이유는 겨울의 추위와 어둠이 끝났음을 알려주기 때문일 것이다. 봄이 오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에 새 잎이 돋고 자연은 다시 새로운 순환을 준비한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도 이러한 봄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노래한다. '길이 끝나는 길에서도 / 길이 있다'는 구절은 겨울의 끝에 맞이한 봄처럼 시련이나 역경이 지난 뒤에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응원이 담겨있다. 포실포실 따스한 별이 내리쬐는 오후의 봄길에서, 〈봄길〉을 읊조리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보자.



###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저자: 김용택

매년 봄 섬진강 주변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매화 축제가 열린다.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은 그의 시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에서 산과 강을 하얗게 뒤덮은 매화꽃잎을 묘사했다. 오랜 기간 섬진강에서 영감을 받아 온 그는 자연에 빚댄 섬세한 감성들을 독자들에게 공감시킨다. '출렁이는 섬진강 가에 서서 당신도 / 매화꽃 꽃잎처럼 물 깊이 / 울어는 보셨는지요' 담담한 듯 애뜻한 시인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섬진강으로 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



### 연옥의 봄

저자: 황동규

'반쯤 깨어보니 언제 스며들었는지 / 방 안에 라일락 향이 그윽하다. / 그대, 혹시 못 만나게 되더라도 / 적어도 이 봄밤은 이 세상 안에서 서성이게.'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아들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 시인 황동규의 16번째 시집 〈연옥의 봄〉에 실린 시다. 꿈 속에서 옛 동네를 산책하다 깨어나 라일락 향기를 맡았다는 구절에서 봄밤의 꿈결 같은 그리움과 애뜻함이 느껴진다. 노년을 맞은 시인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이 시들은 향기로운 봄밤, 잊고 지낸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Exhibit 전시 MUSEUM TICKET



**봄, 침표 하나, 여가의 시작**

기간: 2017.4.6(목)~6.18(일) 장소: 고양아람누리 미술관

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거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리프레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고양아람누리에서 기획한 전시 <봄, 침표 하나, 여가의 시작>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가시간의 의미와 여가시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한다. 강효명, 김태현, 박예지나 등 1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설치, 참여미술 등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여가생활에 대해 보여줄 계획이다. 전시와 함께 상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 손안의 정원 만들기', '등 만들기' 등의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된다.

**사임당, 그녀의 화원전**

기간: 2017.1.24(화)~2017.06.11(일) / 장소: 서울미술관

울곡 이이의 어머니이자 현모양처를 상징하는 '신사임당'은 당대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와 작가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서울미술관의 <사임당, 그녀의 화원>전에서는 사임당의 작품 15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임당이 머물렀던 오죽헌을 가득 매운 봉숭아, 맨드라미, 원추리꽃, 구정초 등의 꽃과 가지, 오이, 수박, 나비, 개구리, 여치, 벌 등의 식물, 벌레는 그녀의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세밀하고 생생한 묘사와 사실적인 색채의 <초충도> 외에 사임당의 걸작으로 꼽히는 수목화 <묵란도>도 감상할 수 있다.



**카페 소사이어티**

기간: 2017.3.28(화)~2017.9.10(일) / 장소: 서울미술관

카페에 앉아 차 마시기 좋은 계절. 카페 콘셉트로 꾸민 특별한 전시가 개최된다. <카페 소사이어티>라고 이름 붙여진 본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 28명의 작품을 통해 대중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 '카페'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콘셉트에 맞게 전시실도 '닝만다방', '콜드브루', '다크 로스팅', '음악 감상실' 등 카페 관련 키워드로 꾸며졌고 전시 마지막에는 서울 시내 갤러리형 카페 35곳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예술작품으로 감성을 충전하고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갖는 기회를 누리보자.



귀담아듣는 독자엽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우 및 가족들의 많은 염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염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밥문화를 재미있게 다뤘어요!**

사회 트렌드이자 이슈인 혼밥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혼밥러들의 생활과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 혼밥 자체를 즐기는 그들만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박세현 대리(주)이수 HR팀)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열정이 돋보였어요!**

신년호에 알맞게 2017년 신입사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풋풋한 신입사원들의 열정과 패기도 에너지 넘쳤고요. 저도 경력으로 입사해 근무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입사원들과 의기투합해 멋진 2017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관 대리(이수건설 플랜트사업팀)



**2017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2017년 우리가 관심 갖게 될 분야들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서 말해주니 이해하기 쉬웠고, 2017년에 유행할 것들이라니 눈여겨봐야겠네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성 기사를 많이 다뤄주세요.

주상철 기선 배우자(이수페타시스 생산팀)



**'꽃보다 혼밥러' 남 얘기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곧 대학생이 된답니다. 앞으로 혼밥을 해야 할 날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미리 혼밥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소개된 이수 혼밥러들처럼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현명한 혼밥러가 되어겠습니다.

한덕희 차장 자녀 한재리 님(이수시스템 전략사업팀)

보호 Mini Quiz

다른 그림 찾기 1번과 2번 사진의 다른 그림 5개를 찾아주세요.



1.



2.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7년 신년호 업서 당첨자

- (주)이수 경영지원팀 권보영 대리
- (주)이수 HR팀 박세현 대리
- 이수페타시스 구매팀 이상우 기정
- 이수페타시스 내층2 전채환 기선 배우자
- 이수페타시스 생산팀 주상철 기선 배우자
- 이수페타시스 생산4파트 권민규 기선 배우자
- 이수건설 설계조경팀 최태섭 대리
- 이수건설 플랜트사업팀 김영관 대리
- 이수시스템 전략사업팀 한덕희 차장 자녀 한재리 님

2017년 신년호 정답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름호 원고 마감은 6월 20일입니다. 문의 \_ (주)이수 브랜드관리팀 (02)590-6895

# ISU FAMILY FESTIVAL 2017



5월의 푸르름이 곳곳에 피지 않는 화창한 날  
이수가족 여러분과 행복한 하루를 함께합니다.

엄격된 관리만큼 더욱 아름다운 환경이 있으니까?  
올해에도 삼익친 이력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피친 이력분과 가족들이 건강을으로  
즐거움 한때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메시지를 건네드립니다.  
저희에 남의 온 마음을 찾아나 남김없이 잘의 힘을 두어 후다섯의 마음과 전고,  
가족사랑의 건강한 정을 느낄 수 있는  
ISU FAMILY FESTIVAL 2017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ISU FAMILY FESTIVAL 2017

- 일 시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09:30 - 16:00
- 장 소 충북 영동군 금강연못길
- 참 가 전 입자별 별 가족
- 행사내용 식민행사-기회 및 입자별-회복행사-회복연-사람과 세화사
- 참가비용



